

6/22(수) 느헤미야 묵상 16

느헤미야 9: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는 회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같이 모여 굵은 베 옷을 입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달 스무나흘 날

1절에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이게 됩니다(1절,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스무나흘 날’은 초막절이 보통 15일에 시작해서 한 주간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면서 첫째날과 여덟째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레 23:42-43,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이 마치게 되면 스무둘째 날이 됩니다. 즉 이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을 다시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 굵은 베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2절은 말씀합니다(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관계를 뜻한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이 둘 중에서 두번째 견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서 이미 묵상한 대로 혼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합니다. 비록 이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할 순 있지만 이것이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하는 행위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서 한 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이윤호 저)’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문제는 첫째로, 가계의 저주가 조상으로부터 후대에 유전인자를 통해 전달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 육과 혼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조상들로부터 유전인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전가된 죄로 인해 우리는 각자의 죄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겔 18:2-4,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는 더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생각과 행동 즉 습관과 관계까지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날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전념하게 됩니다(3절,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울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낮 시간은 12시간이고 거기서 사분의 일은 3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말해서 세 시간씩 돌아가면서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세 시간은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게 됩니다(4-5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 사람들 중에는 성막에서 번제를 맡은 자들도 있었지만 한편 찬양을 맡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대상 16:4-6,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말씀의 은혜는 기도와 회개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된 행위와 습관이 바뀌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참된 금식은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악한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을 보면 참된 금식과 거짓 금식이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참된 회개가 동반된 것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은 거짓 금식입니다(마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게 하시고 자국을 피신해 타국에 흩어진 실항민들과 이산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특히 건강에 취약한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주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 각 위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